

## 예술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의미 2,

일시; 2012년 5월 12일(토요일) 오전 10시 30분

장소; 영국 리버풀 워커 아트 갤러리( Walker Art gallery, Liverpool, U.K)





진행자; 전하현(런던 시인의 문화학교, Rp' Institute)

토론 참석 대담자,  
박성지 (첼시 fine art 3년), 조광현(홍익대학원 도예과), 김영달 박사(전기공학)  
시간 (17분 40초)

주제/ 예술과 사회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조화의 의미

## 제 2토론,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의 조화의 의미

르네상스 시대의 조화의 개념?

미술의 내부적 조화와 외부적 조화의 만남  
사회적 조건이 하나의 평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되었는가?  
주제와 부제의 조화문제

만약 우리가 깨진 조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?

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조화

사람과 사람과의 조화에선 내가 앞서가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? <김영달 박사>  
현 20대가 사회의 주역이 될 20년 이후의 조화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?  
튀지 않으면 살 수 없다. 살기 위해선 부조화가 필요한 것인가?  
상황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?

지조나 정중동의 개념은 지금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는 루저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닌가?  
지금 변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?  
사람을 만날 때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상대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다양한 얼굴과  
표정으로 대해야 되는 가?

화강동진의 법칙으로 카멜레온 처럼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?  
화강동진(和光同塵) 내 광채를 낮추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라.  
권위주의, 영웅주의는 버려라.  
조화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게 아닌가? <박성지>

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부조화의 문제,  
부조화 속에서는 법이 더욱 강해져야하지 않는가?

성문법 체계 속의 조화와 관습법 체계 속에서의 조화의 개념.

부정형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하는 조화는?